제 18회 졸업 특집

월드미션 헤럴드

목 차

1 들어가기

2 학교소식

발행인 임동선
편집인 최선영, 윤명주, 정훈주
발행일 2009년 5월 16일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5.2322 Fax) 213.385.2332
Website: www.wmu.edu E-mail: wmuinfo@wmu.edu

20주년을 맞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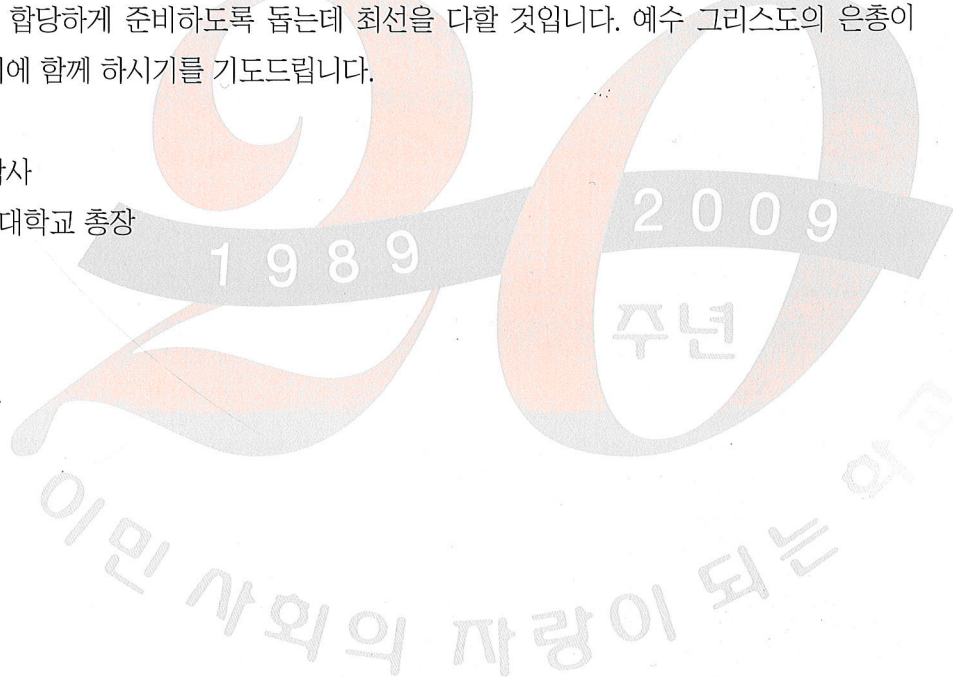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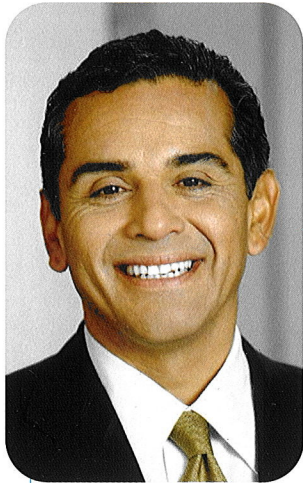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20주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1989년 복음주의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서 교육과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복음적 지성과 덕성, 영성을 갖춘 탁월한 교수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헌신한 학생들이 모여 실천적인 영성과 말씀에 입각한 장을 이루어왔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너희는 가서 모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성경말씀을 좇아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보내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학과를 증설하고 교수진과 도서관을 강화하며 주요 고등교육기관에 가입하였으며 42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세계에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로 보내며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사님들, 후원자님들, 기도후원회, 교수, 졸업생, 학생, 직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의 기초 위에서 성경 중심의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달음질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명실상부 미주 내에서 대표적인 한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20주년을 맞이하고 3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민 사회를 효과적으로 섬기는 학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월드미션대학교를 이끄시는대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하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임동선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A Congratulatory Address from Los Angeles Mayor

ANTONIO R. VILLARAIGOSA
MAYOR

May 13, 2009

Dr. Paul Dongsun Lim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600
Los Angeles, CA 90020

Re: World Mission University's 20th Anniversary

Dear Dr. Lim:

For twenty years, the staff of World Mission University has fostered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service to our communi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respect for how your staff and programs challenge your students to achieve academically while fostering their passion and integrity. The success of your distance learning program and the accreditation of your programs are significant milestones.

I am aware that World Mission University's music department has nurtured student's artistic ability and maintained the City of Los Angeles as a beacon to people of all cultures and faiths.

I offer you my congratulations.

Very truly yours,

ANTONIO R. VILLARAIGOSA
Mayor

ARV: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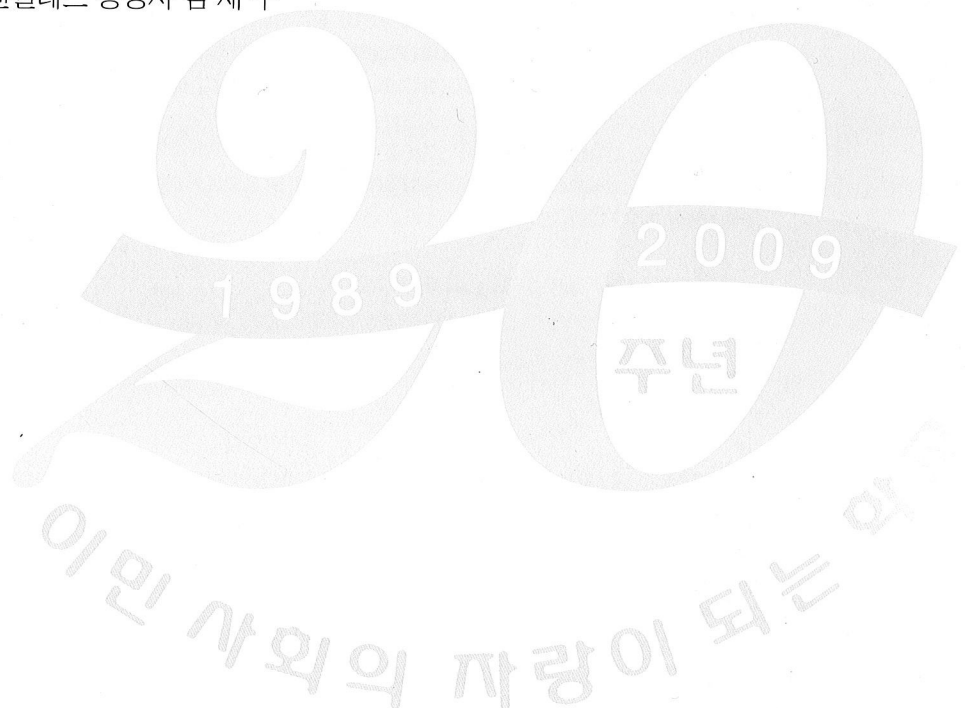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의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담은 계간지를 발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89년 개교한 월드미션대학교가 올해로써 20주년을 맞이하여 성년이 되고, 평가인증(Accreditation)을 통해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로 성장한 것은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교수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오늘의 동포사회를 만들었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성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월드미션대학이 동포사회 및 주류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금번 발행되는 계간지가 학교발전의 메신저가 되기를 기원하며,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4월 9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김 재 수

2009년은 월드미션대학교가 세워진 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복음주의 신학 기초 위에서 성경 중심의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를 말씀과 학문, 영성훈련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 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본교가 미주 내에서 대표적인 한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교는 계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성서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육 시행
이 시대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속화되어 더욱 신실한 신앙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암담한 시대에 본교는 성서적 교육으로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며, 교수들은 성서를 바탕으로 한 신앙적인 교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친절성을 겸비한 인력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친절성을 갖춘 직원이 되도록 훈련하여, 맡은 일에 최선의 자질을 발휘하도록 하며, 해당 업무이외에도 학교 전반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학교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교 30주년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민사회에 모범이 되는 기독교대학교, 한인사회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학교, 한인사회의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학교, 즉 이민사회의 자랑이 되는 학교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약하여 앞으로 한국어 프로그램에서 영어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원격교육과정의 온라인화를 실현함으로써, 미 주류사회에 귀감이 되는 기독교 종합대학교로 입지를 굳힐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 2세와 영어권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교로 발전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종합대학교, 세계적으로 공헌함으로 가장 큰 선호도를 가진 학교,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학감

교수 칼럼 / 조 석 환, Ph. D.

조직신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제언

조석환 교수
Cho, Seog Whan

현 World Mission University
현대신학, 기독교 윤리학 교수

Ph.D., Emory University, 1976
S.T.M., Boston University, 1972
M.Div., Drew University, 1959
B.A., The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1957

1.조직신학 의 특징과 목표

What is the Meaning and Goal of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은 기독교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독교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체계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조직신학은 신앙과 교리의 제일 자료와 표준(the primary source and criterion)이 되는 신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며, 교회의 역사적 전통(the patristic writings, the Middle ages, the Reformation, historical documents of the faith, etc.)과 종교 경험(personal or communal, original or modern)을 학문적 방법(이성)을 통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 한다. 성경은 많은 신학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신앙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책이 아니다. 그럼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단과의 대처, 희랍 철학의 도전, 신앙의 변증의 필요성, 교권주의에 대한 반항 등에 의해 바른 기독교 신앙의 체계적 표현이 필요하게 되면서, 교회의 공식적 교의나 학문으로서의 조직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 날 조직신학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지나 일정한 역사적 ,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표현된 복음이 현대인에게 적절성을 갖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신학 이외의 다른 학문들, 철학, 역사학, 심리학, 사회학, 자연과학 등에서 얻은 자식이나 재료들을 활용(또는 비판)하며, 이성과 자율을 강조 하는 현대인들의 용어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능력을 재해석하려 노력한다.

2.조직 신학 연구와 교육의 최근 동향

How is Systematic Theology as a discipline changing in the areas of research and teaching?

역사를 통해, 철학의 각분과가 세분화되며, 각분과가 독립 학문으로 발달하면서, 한때 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독립성이나 필요성이 흔들렸던 것처럼, 문화적 급변과 단편화의 시대인(the time of rapid cultural change and of fragmentation) 근래에 와서, 통일성(coherence)과 전체성(wholeness)을 강조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서의 조직신학의 존립 이유가 흔들리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신학의 여러 분야가 발달하면서, 성서신학, 역사신학, 교리 사 등에 겹쳐 있거나 얽혀있는

조직신학이 따로 독립해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다른 한편, 자연 과학이 발달하면서, 관찰(observation)과 실험(experimentation)의 방법을 따르며 귀납법적 논리를 따르는 연구를 학문(學問, 독일어로 Wissenschaft, 영어로 science)이라고 보게 됨으로, 이러한 협의의 의미에서 신학 또는 조직신학을 학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그러나 신학은 일정한 원리(axioms)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논리의 전개나 비판적 방법론에서 다른 학문들과 공통성을 많이 가지며, 동시에 신학은 이론의 출발점인 그 기본 원리(신학의 주제는 하나님 또는 종교 경험)가 다른 학문에 비해 독특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독특한 학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it's unique status). 예를 들면, Thomas Aquinas는 신의 존재의 증명에서부터 출발하여, 철학 특히 Aristotle의 사상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학문으로서의 그의 신학을 그 나름대로 확립 하였다. Karl Barth는 하나님의 계시(the Word of God)에서 출발하여 그의 신학적 체계를 확립 하였다. 물론 Friedrich Schleiermacher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관찰과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한자 (the infinite)인 신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지 아니 하고, 인간의 종교 경험 또는 감정(a feeling or awareness of 'absolute dependence')을 신학 연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오늘날 각 중요 신학대학이나 대학들에서 조직신학은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등과 더불어 하나의 중요한 신학교육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Internet을 포함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로 각 대학에서는 조직신학을 포함한 신학교육 커리큘럼의 편성, 원격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방법,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를 포함한 각 대학 간 또는 교단 및 종교 간의 동시적 대화의 통로를 새로 개발 하게 되었다.

현재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 S. and Canada에 등록된 신학교(member) 수가 300여개에 이른다(www.ats.edu). 여기 게재된 'Denominational Index'에 의하면, 비-교파(nondenominational) 신학이 17개교이고 초교파(interdenominational) 신학이 46개이며 나머지는 천주교와 유대교를 포함한 여러 개신교 교단에 속한다. 이 모든 신학교 또는 대학의 조직신학 과목의 배치와 교육 방향을 시간과 지면의 제한으로 다 조사 할 수 없음으로, 몇 학교만 선정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선정한 학교들의 조직신학 과목 배치상황은 아래 와 같다:

Methodist: Drew University, Theological School (www.drew.edu)

Theological Course Listings:

신학교육 과목은 5개 분야(divisions)로 분류

Division 1: Biblical Studies
Division 2: Church History
Division 3: Theology and Philosophy
Division 4: Church and Society
Division 5: Pastoral Theology

Division 3 는 Basic Courses 와 Advanced Courses로 구분됨. Basic Courses에 Philosophical Resources for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Challenge of World Religions to Christianity, the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Skills가 포함 되 있음.

Advanced Courses에 Topics in Theology, 20th C. Theologies, Constructive Theology, Philosophical Theology, Theology of Mission, Authority of Scripture and Tradition, Process theology, Schleiermacher and Tillich, The Theology of Karl Barth, Liberation Theology, Feminist Theology, Asian Theology, Ecumenical theology, Philosophy of Religion 등 31개 과목이 배정돼 있음.

Interdenominational: Harvard Divinity School (www.hds.harvard.edu)

Area I - Scripture and Interpretation

Area II - Christianity and Culture

Area III - Religions of the World   Language Courses

Area II 는 Liberalism and Orthodoxy, Black Gospel, Faith, Doing Constructive theology, Colloquium in Theology, Religion and American Pragmatic Tradition, Religion and Government, Thinking Theologically about Violence and Abuse, Thinking Theologically about Community Building, Thinking Theologically about Authority and Power, Thinking Theologically about Justice and Advocacy, Thinking Theologically about Grief and Loss 등 61개 과목을 포함 하고 있다.

Interdenominational: Fuller Theological Seminary (Catalog 1997-99)

Master of Divinity and Master of Arts Program:

1. Division of Biblical Studies   2. Division of Theology   3. Division of Ministry

Division of theology 는 (1) Church History and History of Doctrine, (2) Ethics, (3) Theological Language Studies, (4) Philosophy, (5) Theology 로 구분 되어 있음. (5) Theology 는 Systematic Theology I, Systematic Theology II, Systematic Theology III, Karl Barth and Evangelical Theology, Theology and Film, Theology Through the Arts, Practical Pastoral Theology, Theology of Worship, Types of Christian Theology, Theology of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등 33개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Undergraduate (Baptist): The Master's College (1998-2000 Catalog)

Biblical Studies: Apologetics, Bible Exposition, Biblical Counseling, Biblical Languages, Christian Education, Missions, Theology, Youth Ministry.

Theology 는 N. T. Theology, O. T. Theology, Historical Theology, theological Systems, Contemporary Theology 등을 포함 하고 있음.

Reformed Tradition (Korean American):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Catalog 2001-3)

1. Language Studies   2. Biblical Studies
3. Historical Studies   4. Theological Studies
5. Practical Theology (sub divisions: Church and Ministry; Christian Education; Mission and Church Growth) 등 5개 분야.

Theological Studies는 Systematic theology와 Philosophical and Moral Theology로 분리 되어 있으며, Systematic Theology 분야에는 Hermeneutics and Biblical Interpretation, Prolegomena and Theological Systems, The Doctrines of God and Man, The Doctrines of Christ and Salvation, The Doctrines of the Church, the Holy Spirit, and Last Things, Contemporary Theology 등 9개 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위에 적은 과목의 배치의 양상을 보면, 각 학교의 신학적 성향과 특색 등으로 인해 과목 배치와 과목 명칭 등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신학과목들을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등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내용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적응하여, 교과목 배치에 인문학(철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과 자연과학계의 새로운 발견들을 보다 더 폭 넓게 수용 또는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의 소개와 타 종교와의 대화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이한 것은, 신학 연구의 수단의 터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Information Technology에 관계 된 과목들을 신설하고 있다.

3.본교 커리큘럼과의 관계와 장기 계획

How does the discipline contribute to WMU's curriculum? What are your ideas for improvement?

World Mission University는 'Mission Statement"에 명시 된 대로 성서-중심이고 선교에 열정을 갖는 복음주의적 교육기관이다(Catalog 2005-2006, p. 8). 본교는 이 기본 정신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본교의 curriculum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수준(level)으로 나누어져 있다:

A. Undergraduate Level *(B. A. in Biblical Studies)*	**B. Graduate Level** *(M. A. in Theol. & M. Div.)*
Biblical Studies Bible and Theolog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History Liberal Arts, Missiology Practical Theology, Theology Theology에 Christian Ethics Systematic Theology I & II Pauline Theology Contemporary Theology Apologetics가 배치되어 있음.	Biblical Language Biblical Theology History of Church Missiology Practical Theology Field Education Systematic Theology Systematic Theology에 Introduction to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I & II Christian Apologetics Contemporary Theology Christian Ethics Theology of John Wesley Theological English가 배치 됨.

본교에 개설 된 조직신학 과목들(under the division of Theology or Systematic Theology)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다. (1) 총괄적 과목들, 변증 신학 및 기타, (2) 시대나 학자에 따른 과목들 (3) 주제별 과목들과 기독교 윤리. 제1 범주에는 Introduction to Theology(ST501)와 Systematic Theology I 과 II(TH201, TH202, ST501, ST502), Apologetics(TH401, ST504)와 Theological English(ST528); 제2 범주에는 Contemporary Theology(TH304, ST505), Pauline Theology (TH301) 와 Theology of John Wesley(ST511); 제3 범주에는 Christian Ethics(TH106 & ST506) 가 배정 되어 있음. 위에 적은 교과 배정은, 비록 규모가 작지만은, 본교의 복음주의적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교과과목의 새로운 개설, 폐설, 재조정 등은 학교의 발전과 학생 수 의 증가 등에 따라 curriculum 위원회 등의 연구와 건의를 거쳐 본교의 해당 업무 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몇 가지 잠정적 제언을 하면 아래 같다: (1) 조직신학 개론을 undergraduate 과정에서 택하고 온 학생들에게는 Graduate 과정에서 이 과목을 다시 하게 하기보다(비록 수준을 높인다고 해도), Graduate level에 조직신학 각론(예, 신관,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구원론 등)을 개설하여 중복을 피하면서 더 깊이 연구

하게함이 어떨 까 한다. (2) 어느 과목을 어느 범주(division)에 넣느냐는 문제; 예, Pauline Theology (성서신학에) 와 Theological English(언어 분야). (3) 시대나 학자에 따른 과목들(Asian Theology, 토착화 신학, Ecumenical theology, Schleiermacher, Reinhold Niebuhr, Tillich, Karl Barth 등 ,)과 주제별 과목들(Liberalism and Orthodoxy, Theology of Mission, 조직신학 각론 등)의 증설의 필요.

4.개인적 철학 또는 견해.

R. Robert Cueni가 What Ministers Can't Learn in Seminary에서 말 한 것처럼 신학생이 목회나 다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신학교에서 다 배우지 못 한다. 졸업 후 일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배우게 된다. 그러나 신학교에 있는 동안 신학의 기본적(basic and critical) 실체(substance)와 지식을 착실하게 배워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신학의 기본적 과목 이외의 과목들('변두리 과목들')에 너무 열중하다 정작 기독교 생활의 표준이 되는 성서적인 기독교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현장에 나가는 것은 현명한 일 이 못 된다. Karl Barth는 Adolf Von Harnack 같은 세기적 교수 밑에서 철학과 신학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목회 현장에 나갔다. 그가 어느 교회 강단에 서 설교 하려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알 수 가 없었다고 한다. 오늘 날 신학교를 갓 나와 사역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닐 것이다. 본인도 여러 신학교에서 연구하고 신학교 교수 생활을 거쳐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위에 적은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우리 기독교신앙의 내용(What are the major beliefs of Christianity?)에 대한 건전하고 확실한 신학적 이해(sound theological basis)가 없이 (물론,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상하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 확신이란 위험한 것으로 보겠지만, 그리고 이점을 이해 하지만) 현장에 나가 사역하게 되면, 복음의 사도로서의 방향제시나 지도력의 발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Reinhold Niebuhr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도덕, 경제, 정치, 사회 제 분야에서 예언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 및 '천국' 에 대한 깊은 성서적 이해와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건전하게 배정된 조직신학 과목들은 본교의 성서 중심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목적 실현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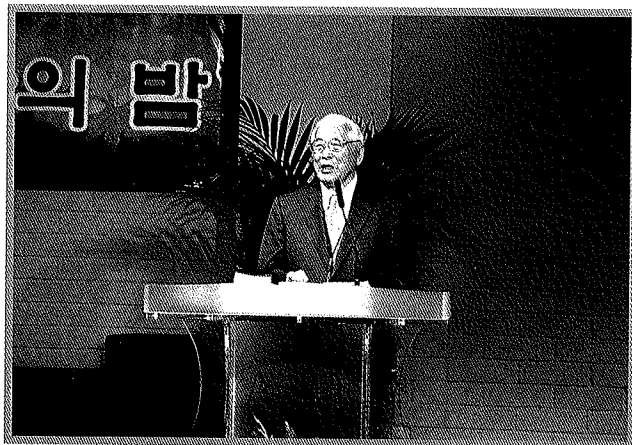
달란트 운동

기숙사 건축기금을 위한 학생참여의 한 일환으로 진행된 달란트운동은 학생 각각에게 Seed Money를 지급하고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하든지 활동 결과 Profit을 남겨 그 남겨진 Profit을 기숙사 건축 기금으로 헌금하는 운동이다. 지난 2008년 9월에 시작하여 근 2개월간에 거쳐 진행된 달란트운동의 결과는 총 53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헌신하여 $16,936을 기숙사 기금으로 헌금하였고, 그 외에도 새로이 추대된 후원이사가 1명, 기도후원자로 자원하신 후원자는 22명으로 이들이 헌신한 금액은 $1,800이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기숙사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신 학우들과 저희 월드미션대학교를 사랑하셔서 힘껏 지원하시는 모든 후원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해 주신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현주, 고선우, 고정석, 공성란, 곽순희, 금미화, 김권수, 김대동, 김대성, 김동환, 김명신, 김박선미, 김선애, 김선영, 김정득, 김중한, 김캐티, 노종주, 라캐빈, 박병문, 박윤우, 박정훈, 박표강, 서무생, 손복남, 신선미, 신은혜, 양한나, 여현정, 오금미, 원현옥, 유병필, 유영, 윤명주, 윤박선미, 윤은영, 이성희, 이용자, 이은혜, 이현, 이현일, 이희재, 임중혁, 정나연, 정병기, 조명희, 채규태, 최명순, 최영수, 추영선, 최세라, 한용섭, MT 사랑팀

후원감사의 밤

지난 11월 1일 본교에서 설립 20주년 감사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동선 총장은 "월드미션대학교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랑과 희망과 꿈을 공급하는 선지학교로 세운지 20년의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그간 이 학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해 루터나 웨슬리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배출되어 병들어 가는 이 지구촌을 복음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라는 환영사로 행사를 시작했다.

음악과 학생들의 특별 축하연주로 '축복',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리톤 구충길이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라르고'와 소프라노 신선미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불러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합창단의 '여호수아 이겼네 여리고'를 부른 후 수차례 앵콜이 계속돼 '남촌', '내 마음의 강물', '농부가', '경복궁타령'을 불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 행사에서 임총장은 정연희 집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으며, 임승표 장로의 인사말과 최선영 사무처장의 학교 현황보고, 윤성환 목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환영사를 전하는 임동선 총장

개교 20주년을 축하하며

행사 후 기념촬영

입학설명회

2009년도 봄학기 입학설명회가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 6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교의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신학과, 상담학과, 일반학과, 목회학과, 음악과와 ESL 및 온라인 학습과정과 유아교육, 상담, 찬양사역자 자격증 과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 재정부담없이 정부보조금과 학비융자를 받아 공부하는 방법과 등록금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유학생 I-20 상담도 함께 진행되었다.

소프라노 신선미 입상

석사과정 중에 있는 소프라노 신선미 학생이 Metropolitan Opera National Council Auditions 에서 영예의 2등을 차지했다. Metropolitan Opera National Council Auditions은 재능 있는 젊은 성악가를 발굴하는 취지로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친 후 두 번의 예선 그리고 본선을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콩쿨이다.

신선미 학생은 한국에서 한세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국립 오페라 합창단 상임 단원을 역임했으며 오페라 카르멘과 라트라비아타에 출연하였고 음악춘추콩쿨, 전국수리음악콩쿨에 입상하였다. 현재 본교 음악과에서 캐슬린 로랜드 박사에게 사사받고 있다.

임성진 학감 남아공방문

임성진학감은 지난 9월 말부터 일주일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문길에 올라 본교 후원자와 졸업생을 만나고 돌아왔다. 아프리카 선교교회 (이상훈 목사 사역)에서 주일설교를 한 후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의 황재길 장로를 만나 개교 2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기숙사구입을 위한 기금모금활동을 소개했다. 황재길 장로는 이에 깊이 호응하여 본교의 기숙사 구입 후원금으로 만불을 쾌척하였다. 이후 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본교 졸업생 박창식 선교사 (세계로 선교회)부부와 이상훈 목사 가족, 황재길 장로 가족을 두루 만난 후 돌아왔다.

기숙사 구입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해주신 황재길 장로님에게 감사드린다.

남가주 연합 신학대학 체육대회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협의회 주최로 본교를 비롯한 남침례대, 장신대가 모인 제10회 남가주 연합 신학대학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8일 (土) Ralph B. Clark Regional Park에서 모처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본교 외에 남침례대, 장신대 100여명이 참가해 열린 연합 체육대회에서는 축구와 족구, 피구, 배구 등 다채로운 행사로 한마당 축제가 펼쳐졌다.

응원을 나온 학교 학생들

축구시합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는 선수들

기숙사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제 5회 학생 음악회

본교 음악과가 마련하는 제 5 회 "Student Music Festival"이 지난 11월 22일 First Church of the Nazareth (찬양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러시아, 노르웨이,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다. '유럽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의 성격으로 선보인 이번 연주회 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Piano Concerto No.2' 비롯해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우' , 브람스의 ' 헝가리안 무곡 5, 6번' ,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등이다. 음악과에 재학 중인 지휘 전공자들이 챔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성악, 피아노 전공자들이 연주하였다.

이 음악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임상 음악과장은 "이번 연주회의 특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음악과 학생들의 힘을 모아 학교 기숙사 건축 기금 모금을 위해 동참하는 것과 둘째, 그동안의 어떤 연주회 보다 성숙된 기량을 선보임으로써 한인 커뮤니티 문화계의 발전을 한인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음악과 학생들의 연주기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좋은 음악회를 선보이자는 의도로 준비되어온 본교의 학생 콘서트는 해를 지나가면서 연말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음악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이번 연주회 모든 수익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본교의 기숙사 마련을 위한 건축기금으로 헌금 되었다.

말씀을 전하는 임성진 학감

학교를 위해 힘쓴 학생에게 감사

월드미션의 밤

지난 2008년 11월 25일 본교에서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가족, 그리고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해를 정리하며 교제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인 '월드미션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즐거운 식사와 함께 학생들과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발표와 연극과 음악, 교수중창 등이 있었고, 또한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교수에게 감사메달을 전달하는 등 다채롭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의 연극, 탕자의 비유

2009년도 봄학기 개강

지난 1월 15일 2009년도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가 열렸다. 이번 학기에는 총 57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교수님들과 수강상담, 총장님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신입생, 재학생, 교수 및 동문, 후원회와 함께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 재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을 필두로 송운철 교수의 사회로 식사와 친교를 나누었으며 교수, 신입생, 동문회를 소개하는 순서와 기도후원회가 준비한 선물증정이 있었다. 이날 임동선 총장님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라는 제목으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주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받아 사역지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무엇보다도 성경읽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고 강조하였다.

2009년 봄학기 신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FCC 김성혜 (원격: 고미령, 김숙자) IEP 오영란
ECE (원격: 변현희, 육은정)
BA 강소라, 고돈석, 박상준, 박옥현, 박혜미, 이명은, 이엘렌, 임옥경, 정유나 (원격: 김경수, 김성희, 김인옥, 박은경, 양승희, 윤여진, 이내경, 임성건, 최병숙, 한금자, 황향미)
BAM 김동원, 김성렬, 안혜리
MAM 강성근, 박종휘, 정희란
MAT 김미숙, 서혜진, 오헨리, 조윤선
M.Div. 박손주은, 정요한, 정재광, 정재헌 (원격: 권혁준, 김동순, 김정석, 김종민, 김용민, 기한수, 문주철, 석미연, 신명숙, 오은영, 우광필, 이성은. 이진순, 임용수, 최현숙, 황성국, 황재길)

창조과학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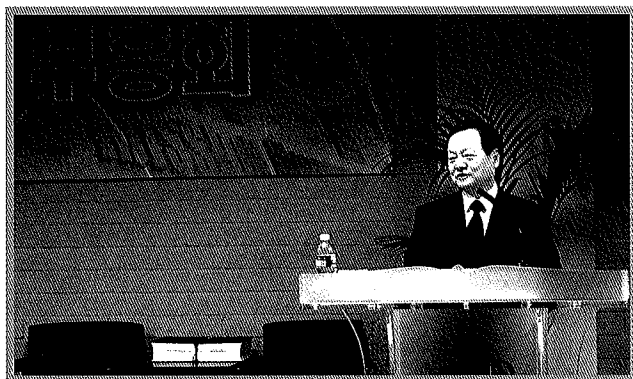
지난 2월 28일(토) 본교 학생과 가족 등 90여명은 창조과학선교회 이재만 부회장님과 최우성 서부지부장님의 안내로 샌디에고 창조과학 박물관 견학을 다녀왔다. 오전 8시에 본교에서 버스 두대로 출발하여 노아홍수, 바벨탑과 언어분산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 창조과학 박물관을 견학하였으며 점심식사 후에는 샌디에고 Torrey Pines Beach에서 노아홍수 증거답사를 하고 창조의 신비-창조의 꽃 사람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하였다. 엘에이에 도착한 후에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햄버거로 저녁식사를 하고 정리기도를 한 후 헤어졌다.

개강부흥회

지난 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80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김근수 목사를 강사로 개강부흥회가 열렸다.

김목사는 첫날 이사야 6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과의 영적교제' 에 대해서, 이어 둘째날에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으로 '고난의 사역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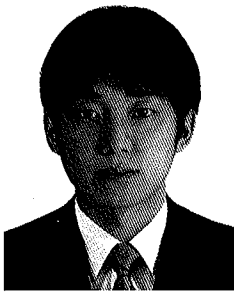
김목사는 이날 부흥회에서 사역자로 헌신한 신학생들에게 성경 말씀과 사역경험을 바탕으로 사역자의 본분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부하였다.

김근수 목사는 분당한울교회 담임 목사, 칼빈대학교 신약신학교수로 섬기고 있다. 한국성서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칼빈신학교에서 Th.M.를 받았으며, 영국 웨일즈대학교에서 신약신학으로 Ph.D. 학위를 취득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근수 목사님

창조과학여행 단체사진

설교대회

2009년도 봄학기 설교대회가 4월 21일과 23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설교대회에는 이명은 학우는 '다시 꿈을 꾸십시오', 정요한 학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경연 학우는 '광야를 통해 성장하는 믿음의 태도'와 정재헌 학우는 '세 사람의 헌금'이라는 주제로 참가했다. 또 지난 학기 설교대회 입상자 시상식도 함께 열렸으며 특상에는 임종혁, 우수상에는 김대성, 신은혜, 장려상에는 손복남, 김영희 학우가 각각 선정되었다.

2009년도 봄학기 설교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특상: 정재헌 우수상: 이경연, 이명은, 정요한

제목 : 세 사람의 헌금
본문 : 마가복음 12:41-44
작성자 : 정재헌 (성서문학사 과정 재학)

과부의 헌금에 대한 본문을 통해 세 사람의 헌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에 놓여 있었는데, 성전세를 넣는 상자와 자원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자였습니다. 헌금은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장들의 생계유지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때는 유월절로 수많은 인파가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을 앞에 두고 앉아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헌금하였습니다. 그때 가난한 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헌금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던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한 사랑과 정의보다는 체면과 지위에 의하여 더 지탱되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먹구름 사이로 비집고 새어나오는 한줄기 햇살처럼 한 과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과부는 위선적 종교생활과 물질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위에 선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때 묻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헌금은 과부의 헌금입니다. 그녀가 넣은 두 렙돈은 어느 정도 액수였을까요? 두 렙돈은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한 1데나리온의 1/64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아주 넉넉히 노동자 하루 수당을 10만원으로 잡으면 1562원입니다. 예수님은 1562원을 넣은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과부의 작은 두 렙돈은 연금술처럼 값비싼 황금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칭찬에 의해서,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영예를, 단돈 두 렙돈에 (1562원에)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헌금은 드린 액수로만 평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헌금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과시적인 헌금이나,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차원 이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보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 재능, 영향력 등도 넣을 수 있는 헌금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색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그 재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 사용합니다. 그의 시간표에는 성경이나 기도보다 텔레비전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음을, 인생을 헌금함에 넣어 주께 드리기보다 자기 주머니에 넣어 자기의 편안과 즐거움을 위해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 시간을 아끼고 귀중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늦은 밤의 인터넷 때문에 새벽의 경건이 위협을 받는다면 차라리 밤의 인터넷을 포기할지언정, 새벽에 주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드라마 한 편을 못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복지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영향력을 겸손히 쏟아 붇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전체, 즉 "모든 소유"를 헌금함 안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헌금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헌금함에 자기의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하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큰 부자였으나, 가난하고 비참한 죄인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 속에 담겨져 있는 수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함입니다. 이에 우리는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흘 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우리는, 더 깊은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와 함께 좌정하시던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에서,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으시면서, 부를 조금 떼어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곳에 스스로 처하신 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막10:45). 그분은 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요 12:24).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천지라는 공간과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나의 모든 소유 곧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뜨겁고 깊은 사랑과 헌신,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새 삶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재능과 학문과 영향력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김덕호, 서상민, 김수현 졸업생

2009년 세계선교연합회 목사안수식

본교 졸업생 3명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통섭적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2일 열린 세계선교연합회 제 23차 총회 및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았다. 이날 열린 목사 안수식 및 선교사 파송식에는 이인검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임동선 목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전했다.

안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덕호 월드미션대학교 M.Div., 뉴저지 벧엘장로교회
김수현 월드미션대학교 M.Div., 샌디에고 한빛교회
서상민 월드미션대학교 M.Div., 남가주 빌라델비아 교회

2009년도 여름학기 및 가을학기 개설과목

2009년도 여름학기는 5월 11일에 시작되어 7월 17일에 끝나며 교수법 (신선묵), 결혼 가정상담 (강크리스티나), 누가복음 (송운철), 미국문화 (박알렉스), 히브리어 I (김선익) 등 학부와 대학원에 5개과정이 개설된다.
2009년도 가을학기는 8월 24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에 총 56개 강의가 개설되었다.

현재 본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 개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학부과정

공통: 마태복음 (UnCheol Song), 위기상담 (ChulWoo Son), 치유 용서 화해 (ChulWoo Son), 구약개론 (SunIck Kim), 공중커뮤니케이션 (JinRag Son), 문화인류학 (JinRag Son), 복음서 (UnCheol Song), 철학개론 (SeogWhan Cho), 논문작성법 (KeumHee Lee), 지도력개론 (Paul S. Shin), 사도행전 (John Park), 세계선교역사 (Paul S. Shin), 수사학 (SunHo Choi), 조직신학 I (SungJin Lim), 서양문명사 (Alex Pak), 사회학개론 (Alex Pak), 청소년 상담 (HyeJeong Kim), 믿음과 이성 (Abraham Oh)
원격교육: 대선지서 (SunIck Kim)
음악: Praise and Worship (Rique Pantoja), WMU Choir (ImSang Yoon), Ensemble (Rique Pantoja), Song Writing (Dan Ring), Sight Singing & Aural Skill I (Wright-Fitzgerald), Choral Conducting (ImSang Yoon), Piano Literature (Esther Yune), Opera Workshop (Kathleen Roland)

대학원과정

공통: 위기상담 (ChulWoo Son), 구약개론 (John McKenna), 졸업논문 (SungJin Lim), 치유 용서 화해 (ChulWoo Son), 성서해석학 (JongSung Nam), 영성의 역사 (SunYoung Choi), 복음서 (UnCheol Song), 목회 신학 (DongSun Lim), 설교실습 (sooyoung Kim), 논문작성법 (KeumHee Lee), 조직신학 II (SungJin Lim), 선교신학 (Paul S. Shin), 신약신학 (Jongsung Nam), 마가복음 (Uncheol Song), 지혜문학 (SunIck Kim), 교회성장학 (Paul S. Shin), 교육목회 (UnCheol Song), 청소년상담 (HyeJeong Kim), 교부신학 (Alex Pak)
원격교육: 교육목회 (UnCheol Song)
음악: WMU Choir (ImSang Yoon), Ensemble (Rique Pantoja), Song Writing (Dan Ring), Song Literature (Kathleen Roland), Choral Conducting (ImSang Yoon), Piano Literature (Esther Yune), Opera Workshop (Kathleen Roland), WMU Chamber Choir (ImSang Yoon), Choral Literature I (Daniel Roihl)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20주년 이민 사회의 자랑이 되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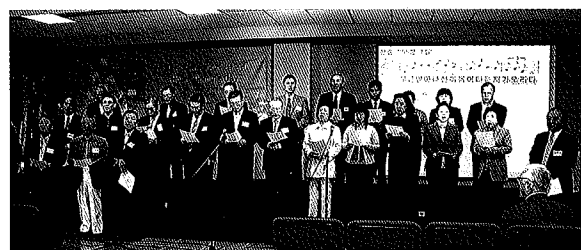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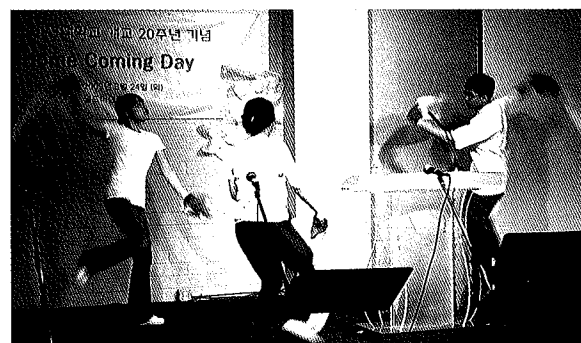
미주 한인 이민 사회의 대표적인 학교 월드미션대학교의 개교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었다.

홈커밍데이, 동문 참여로 풍성

본교 개교 20주년 기념 동문초청 홈커밍데이가 지난 3월 24일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식사와 교제, 축하행사와 예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재수 LA 총영사, 김인수 미주장신대학교 총장, 유진소 ANC 온누리교회 목사, 신승훈 주님의 영광교회 목사가 영상으로 개교 20주년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홈커밍데이에는 동문들(현 윤성환회장)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고 계신 동문들 중 400여 동문들은 현재 본교의 기도후원자로 혹은 후원교회로서 본교를 지원해주고 있다. 20주년 홈커밍데이에 L.A. 근교에서 사역하시는 동문들 중 40여명이 참석하여 동문들의 축하공연을 펼쳐주었고, 학교를 위한 통성기도 시간에 동참하여 눈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일할 일꾼양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문들이 본교의 강력한 후원자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인해 풍성한 모임이 되었다. 또한, 참석하신 동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재학생들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하여 좋은 롤모델을 만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했다.

예배에서 임동선 총장은 히브리서 11장 24절 에서 26절의 '지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도자의 표본으로 모세를 들 수 있는데, 그에게서 통찰력, 즉 멀리 정확히 내다 보는 것과 사명, 사랑, 실력을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도자는 눈이 밝아야 하며, 권위를 겸비해야 하며,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하며, 신념의 사람으로 침착해야 한다"며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훈련받은 사역자 들이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 당부했다.

총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윤성환 동문회장

동문들의 특송

홈커밍데이 축하 공연을 펼친 재학생들

월드미션대학교 동문 여러분들께, 동문 여러분과 댁내에 늘 평안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성경중심, 선교지향적인 지도자들로 무장시키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선지동산이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 자랑이 될 만한 대학으로 성장하여 426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동안 헌신해주신 동문 여러분과 후원자 여러분께 동문회장으로써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개교 20주년 기념 Home Coming Day 에서 동문 여러분들과 재학생들을 만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드미션대학 출신의 동문들이 각자의 교회와 선교지에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모교의 선배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월드미션대학이 앞으로 개교 5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헌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20주년 Home Coming Day에 많은 동문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땅 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모교를 아끼고 사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문회장 윤성환 목사

2009년도 동문회 임원들의 사역현장

윤성환 동문 (Wilshire 연합감리교회) 본교 8회 졸업생 이시며,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8년도 동문회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동문회를 섬기시고 계시며 회장 재임 중 동문회를 "비영리단체" 로 등록하셨으며, Website를 처음으로 개설하셨다. 현 월드미션대학교 10명의 운영이사 중 한분으로 섬기시고 계신다. 또한 학업에도 열중하고 계시어 목회현장에서 경험하신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으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신 바 있으시다.

이상혁 동문 (우리성결교회) 본교 8회 졸업생이시며, 2006년도 동문회장을 지내신바 있으시며 금년에는 동문회 서기로 섬기시고 계신다. 지난 4월 22일에 있었던 심포지움에 패널리스트로 오셔서 유익한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셨다. 현재 한인타운에서 우리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다.

유창식 동문 (버뱅크 새소망교회) 본교 7회 졸업생이시며, 현재 버뱅크 새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섬기시고 계시며, 2007년도 동문회장을 지내바 있으시고, 본교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시며 사모께서는 본교 재학생이시다.

이인검 동문 (L.A. 주님의선교교회) 본교 7회 졸업생이시며 한동안 선교사로 헌신하신 바 있으시고 본 동문회 부회장으로 섬기시고 계신다. 또한 세계복음 선교연합회에서 총무로 수고하고 계시며 L.A. 한인타운 중심지에 있는 주님의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재직중이시다.

오광탁 동문 2008년 17회 졸업생으로 신진이다. 목사안수도 졸업한 같은 년도에 받으시고 본교 재학시 학생회 회장으로 지내며 리더쉽을 발휘하였다. 현재 교회개척에 대해 구상중이며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다.

김효복 동문 본교 7회 졸업생으로 동양선교교회에 출석하시며 한인타운에서 태원한방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시다. 본 동문회에서는 오랜동안 회계를 역임하시고 계신다.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동선 박사)는 개교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월드미션대학교와 한인커뮤니티(World Mission University and Korean American Community)' 란 주제로 4월 14일(화) 저녁 7시에 본 대학 채플에서 개최 했다.

이날 유의영(Cal State LA)교수가 '한인사회와 교회' 라는 제목으로, 한종수(남가주교협 회장, 어바인 침례교회) 목사가 '미주교계의 입장에서 본 기독교 교육기관의 사명'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강연에 나섰으며 이상혁 동문회 부회장, 송운철 교수, 손진락 교수, 주익성 학생회장등이 패널로 나서 질의를 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유의영 교수와 한종수 목사

유의영 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인 이민비자 수혜자들은 년 2만에서 2만5천명으로 지속되고 있고 매년 비이민비자로 미주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20만 명 가량 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정도가 유학생" 이라 말했다. 그는 "LA와 뉴욕 등에는 한인타운이 형성되었고 교외지역의 한인부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인들의 영어구사력은 타민족에 비해 떨어지고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미국사회는 교회의 힘이 막강했지만 점점 그 영향력이 약화 되고 있다" 고 말하고 한인교회 역시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운데 하나는 영어권 자녀세대들의 이탈 현상을 주요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탈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세 위주의 예배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영어를 쓰는 2세들과 언어소통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세와 1세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펼쳐가야 하며 이를 위해 신학교에서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혁 동문 부회장, 송운철 교수, 손진락 교수, 주익성 학생회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종수 목사는 "한인 신학교를 풀러 신학교나 탈봇 신학교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 한인 신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전체질의가 있은 후 임동선 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20주년 심포지움 후 단체사진

20th ANNIVERSARY EVENT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03/24/2009**	**(장소: 월드미션대학교)**
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04/14/2009**	**(장소: 월드미션대학교)**
20주년 기념 음악회	**06/05/2009**	**(장소: Walt Disney Concert Hall)**
20주년 Banquet	**5월말**	
교수 학술지 발표	**5월말**	
20주년 기념 화보집 발표	**5월말**	

반석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하며 이번에 월드미션대학교 성서문학사 (B.A.)과정을 졸업하는 **김제홍 전도사**의 졸업 간증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오늘 간증을 하라고 해서 많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 졌고 많은 것을 내려 놓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이 남아 있는 것들로 인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이 시간 이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유로워 지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체험을 하였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래 희망사항은 전도사 또는 보모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여서 대학에 갈 시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신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목회자와 결혼을 하였고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이 캄캄하며 이런 것이 바로 미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는 것인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골수도 찾게 되었고, 이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없이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한다고, 이럴 순 없다고 따지듯 투덜되며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체크도 한번 써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생활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집안 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도 저는 우편물을 들고 가면 남편이 병실 침대에서 봉투를 뜯었고, 체크를 써서 우표까지 붙여주면, 그저 저는 우체통에 넣는 것만 하였습니다. 무슨 은행을 쓰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도 남편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혹시 항암 치료하다가 정신이 없을지 몰라 써놓은 쪽지에 어느 은행에 얼마, 어느 책갈피에 cash 얼마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아이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나를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큰 벌을 받나 하며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밖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우고 모두 다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무작정 freeway를 100 마일이 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막 4살 된 큰 딸이 1살짜리 동생 안전벨트를 안 맸다며 매어 주려고 자기 car seat 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러다 나만 죽으면, 어린 두 딸은 정말 고아가 되는구나 싶은 마음에 freeway 에서 내려 두 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며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정어머니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신학교를 못 보낸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리셨다면서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테니 가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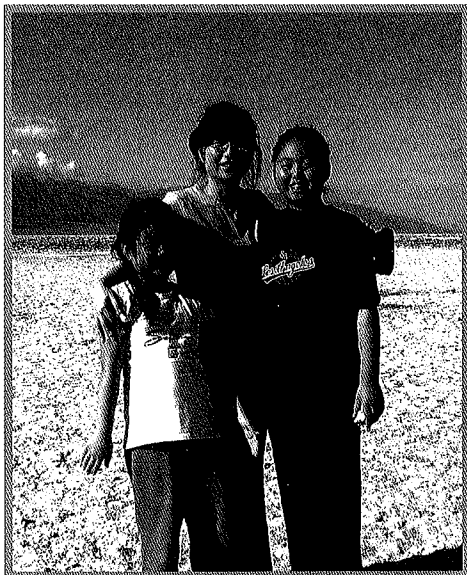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신학교냐며 안 간다고 했지만 친정어머니께서 계속 권면을 하셔서 그럼 한번 학교나 알아보고 오겠노라며 등록마감일 이틀 전에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던 신선묵 교수님께 학교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오려는데 교수님께서 "이왕 오신 김에 등록하고 가시지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등록을 하고 나오는데 또 교수님께서 "시험도 보고 가시지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까지 보고 된 것이 월드미션 대학교를 다니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동선 총장님과의 인터뷰 때에는 학교에 오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고 총장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에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형편이라 어린 두 딸들이 엄마를 붙들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릴 때면 어쩔 수 없이 함께 학교에 오곤 했습니다. 특히 남종성교수님 강의시간에 많이 따라들 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교수님과 학우님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졸기도 하며, 자기도 하면서 잘 있다가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며 공부하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다 큰 것도 아니었고, 또 그때는 학교가 아직 AABC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학비를 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하여서 학교를 그만 두고 싶었는데 마침 친정어머니께서 다리 수술을 하시게 되어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없어 학교를 쉬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쉬고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 다음 학기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성진 학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학기 때도 못 보았는데 이번 학기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한 걸음에 달려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6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2주 후면 남편이 하늘나라를 간 6주기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이제껏 지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두 딸과 Death Valley에서

반석장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열정의 세계선교지도자 양성

월드미션대학교는 복음주의적 교육으로 성경 중심의 선교적 열정을 가진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 양성에 그 설립 취지를 두고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가 1989년 3월 27일 설립한 신학대학이다. 동양선교교회의 후원을 힘입어 개교한 후 지난 20년간 급속히 발전하여 월드미션대는 현재 학문의 전당으로서 행정적으로 독자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3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월드미션대학교는 교통이 편리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건평 6만4천 스퀘어피트의 부지 위에 강의실, 시청각 교실, 컴퓨터실, 예배실, 음악 연습실, 녹음시설, 도서관, 온라인/원격교육 제작 스튜디오 등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부에 성서연구학과, 기독상담학과, 일반학과, 음악과가 있으며 대학원과정에 신학, 음악과, 목회학과가 있으며 과정에 따라 교회사역, 상담, 선교학, 커뮤니케이션, 찬양사역/컨템프러리 음악, 클래식 음악, 교회음악 등의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목회학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며 유치원교사 및 원장자격증 과정, 기독교상담 전문가 수료과정이 있다. 거리와 시간에 구애없이 공부하는 온라인/원격 수업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세계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식학위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의 도서관은 6만5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임총장이 평생 모아온 장서 1만5천여권을 기증한 것이 씨앗이 되어 한글 신학서적과 일반서적, 신간이 빼곡하게 들어서있다.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1년에 25달라를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타학교 학생에게도 책을 대여를 하고 있어 명실공히 커뮤니티에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주정부로부터 매 학기 18만달라 가량의 그랜트(Grant)를 받는다. 거기에 전액장학금을 주는 총장장학금, 주은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이 있으며 성적이 평점 3.5 이상인 경우 수혜자격이 되는 성적장학금을 비롯하여 선교장학금, 부부장학금, 지정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월드미션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 측의 배려와 동문 및 후원자들의 관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을 보조하는 또 하나의 숨은 배려는 교내식당에서 한끼에 2달라에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부족한 금액은 기도후원회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

월드미션, 학교이름 그대로 세계를 향한 선교가 목표인 월드미션대학교는 믿음을 지향하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다. 지원서 접수는 가을학기는 8월 첫째 주, 봄 학기는 1월 첫째 주에 마감하며 온라인/원격교육 프로그램은 수시모집하고 있다.

미주교육신문 2009년 2월 13일자 기사 전제

입학설명회 성황

"가장 가고싶은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

월드미션대학교는 2009년도 봄학기 입학설명회를 지난 1월 13일에 개최했다. 임성진 학감의 사회로 시작된 이 날 입학설명회는 영상으로 학교소개가 있었고 음악과 학생의 환영의 노래, 임성진 학감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이어 신선묵 교수가 정규대학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John Park 교수가 학비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상담학과, 일반학과, 교회음악과, 신학과, 유아교육과정, 온라인 통신교육과정 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성진 학감은 이날 환영사에서 "월드미션대학교는 180명이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으며 120명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다. 본교는 타 대학에 비해 우수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찬 뉴스위크 2009년 1월 21일 기사전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석미연 학우와 가족들

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며 월드미션대학교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성서연구 문학사 (B.A.)과정 을 졸업하고 목회학 석사 (M.Div.)과정을 공부하고 계신 **석미연 전도사**로부터 감사편지가 왔습니다. 이를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월드미션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안 난다. 무엇을 공부했었나 하고 정리해보니 각 과목마다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아울러 수고하여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너무도 감사하며 존경과 주안에서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부하면서 늘 아쉬웠던 것은 진작에 할 걸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였나 하는 조금은 안타까움이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처음 신학교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아리조나에 사는 나로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물론 이곳에는 아주 좋은 미국 신학교가 있지만 막상 미국신학교를 생각하니까 영어공부부터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엄두도 나지않았다. 그무렵 전도여행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난 어느 목사님이 이왕에 신학을 하려면 월드미션에서 하라며 적극적으로 권해주셨다. 그렇게 월드미션대학교에 편입한 일이 엊그제 같은데 드디어 졸업이라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다.

원격통신과정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우들과 직접 만나 교제를 할 수 없고 교수님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원격통신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도사님과 교수님께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며 늘 친절히 도와 주셨기에 오늘 내가 졸업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온다. 또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연방정부의 장학보조금(FAFSA)을 받을 수 있어 큰 걱정없이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나를 공부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엔 학부로서 끝내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졸업이 가까와올수록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처음엔 상담학을 공부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목회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요즈음엔 졸업 후의 진로를 놓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학교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은혜만 취하고 모교에는 아무 유익도 못드린 점이 요사이 회개거리이기도 하다.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보탬이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싶지만 앞으로 학교에서 가르침 받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교육과 봉사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졸업을 앞두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해 본다. 학교에 무궁한 발전과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 날마다 날마다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나는 현재 아리조나 동양선교교회에서 교구담당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아울러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중보기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새 가족사역과 일대일 양육 사역을 하고 있다. 목회학을 공부하든 기독교상담학을 계속하든 앞으로의 사역도 지금하고 있는 사역과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지난번 사역지에서 했던 여성큐티사역이 될 것이며 여성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여성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는 여성이나 남성 혹은 부부를 그룹으로 한 성경공부를 오랫동안 지도하여 왔기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내게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 어떤 거부감이나 부담은 없다. 아울러 오랫동안 전도훈련을 혼성그룹으로 훈련시킨 것이 나의 사역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길을 열어 주시든지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충성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목표이다.

1992년 제1회

강성구 선교사 M.A.
독일람슈타인 동양선교교회 선교사

김용식 목사 M.Div.
뉴멕시코 라스크루시스 한인 침례교회

김진숙 전도사 M.A.
한 국 안디옥교회봉사

박대영 집사 /Dip. 한국

박현수 집사 /Dip. 한국

오기열 전도사 M.Div.
Talbot 박사과정

이범웅 목사 M.Div
LA 찬양교회 담임목사

임성진 목사 M.A.
월드미션대학교학감/교무처장

조원하 선교사 M.Div.

1993년 제2회

고바울 전도사

남조웅 선교사 M.Div.
밸리청소년센터 원장

오윤화 전도사 M.Div

유순자 전도사 M.Div
Fuller 목회학 박사, 학위받음

윤경호 목사 M.Div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이 훈 목사 M.Div.
나성신보/언론인

임용한 목사 M.Div / 한국

한은희 전도사 M.A.

1994년 제3회

김성봉 전도사 B.A.

김영희 선교사
중국 연변 현지 선교사

김추자 전도사 B.A.
동양선교교회 병원선교 전도사

박병철 전도사 M.Div
코너스톤교회 교육전도사

안국련 목사 M.Div
열매교회 담임목사

이극래 전도사 M.Div

이승인 목사 M.Div
시애틀 (WA)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이영숙 전도사 B.A.

이재현 목사 M.Div
Palmdale OMC 담임목사
WMU 운영이사

이정남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가주평강교회 담임목사

이종예 전도사 M.Div

주영세 목사 M.Div

함상배 선교사 M.Div
OMC 후원 중국 선교사

고해현

1995년 제4회

김계희 전도사 M.Div

김재선 목사 M.Div

이제은 집사 M.Div
동양선교교회

임금화 권사 B.A
멕시코 선교

장코스모스 전도사 B.A
중국선교사

조화진 사모 M.Div
병원사역

최영희 선교사 M.Div
태국 파송 선교사

홍문숙 전도사 M.A.

이은혜

1996년 제5회

김덕규 목사 M.Div
새소망선교교회 담임목사 (개척)

김진국목사/M.Div
김성조사모/M.A. (중국선교사)
오레곤 성결교회 목사부부

김애영 전도사 M.Div
부름선교교회

김인광 전도사 M.Div
킹슬리노인센터

남윤희 목사 M.Div
버뱅크 새소망교회

노명섭 목사 M.Div
샌디에고 제일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박정숙 전도사
유니온교회 전도사

박준림 목사 M.Div

백영두 장로 M.A
Wycliffe Bible Translators

서기자 전도사 M.Div
동양선교교회

유경순 전도사 B.A.

이명희 전도사 B.A.
뉴호프채플

윤재영 전도사 M.Div

이주형 목사 M.Div

최서혜 전도사 M.Div

박명보 선교사 M.A.
한국장로교회

김성자 전도사 M.Div
밸리한인장로교회 찬양,교구 전도사

1997년 제6회

권재옥 목사 B.A.
중국선교사

김동준 목사 B.A.
생명의 빛 교회 담임목사
브라질교회 담임목사

신봉례 M.Div
OMC 출석

이성례 B.A

이혜정 전도사 M.A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사

1998년 제7회

김인희 B.A.

김효복 B.A
O.M.C. 출석

우병은 B.A.

이경인 B.A

이해련 B.A.
생명의빛 교회 전도사

전춘영 B.A.
벨리 유니온교회 전도사

황성은 목사 B.A
필그림 교회

권옥선 전도사 M.Div
장로교회 전도사

김주연 목사 M.Div
중국선교사 (연변)

류창식 목사 M.Div
신영희 전도사 M.Div
버뱅크 새소망교회

엄재헌 목사 M.Div
프랑스 거주

이인검 목사 M.Div
L.A. 주님의 선교교회

전성도 전도사 M.Div
종려선교교회 전도사

전인순 전도사 M.Div
성서장로교회 전도사

한희숙 전도사 M.Div
동양선교교회소망부 전도사

1999년 제8회

김경례 전도사B.A

정남숙 목사 B.A.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부목사

양준석 장로 M.A.
동양선교교회

김인수 목사 M.Div

백우철 목사 M.Div
행복한 교회

윤성환 목사 M.Div
WMU 운영이사
윌셔연합감리교회 부목사

이명희 M.Div
뉴호프 채플

이상혁목사 M.Div
우리교회 목사

최학철목사 M.Div
중국선교사

조성운 M.Div
예수촌 교회

2000년 제9회

박재민 목사 B.A

유동훈 목사 B.A
멕시코 선교

이보경 B.A

조은혜 전도사 B.A
남가주 하나교회

홍종우 전도사 B.A.

강정학 전도사 B.A.
나성한인감리교회

권재옥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대환 전도사 M.Div

김동준 목사 M.Div
생명의빛 교회 담임목사

김인희 전도사 M.Div

박정숙 전도사 M.Div
유니온 교회 전도사

송종은 집사 M.A

전춘영 전도사 M.Div
벨리 유니온교회 전도사

정영식 장로 M.Div

조항목 목사 M.Div

황성은 목사 M.Div
필그림 교회

2001년 제10회

이해련 전도사 M.Div
생명의빛교회 전도사

조배성 목사 M.Div
나성중앙장로교회 전도사

김대준 선교사 B.A.
중국 선교

서필관 목사 B.A.
중국 선교사

오하영 전도사 B.A.
세계로교회 전도사

이미량 B.A.
뉴호프채플

진미애 B.A.

진범서 B.A.

진숙이 전도사 B.A.
무궁화침례교회

최영순 전도사 B.A.
선민교회 전도사

홍표란 B.A.
사랑의 교회

2002년 제11회

강태준 전도사 B.A.
나성양문교회

김선애 전도사 B.A.
풍성한 교회

김승원 집사 B.A.
창대 교회

김정옥 B.A.
중국

안용균 전도사 B.A.
울타리 교회

윤병완 전도사 B.A.
행복한 교회

이신재 B.A.

주문경 B.A.
한국

최준영 B.A.
동양선교교회

진성백 목사 B.A.
나성양문교회

고영집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경래 M.Div
양문교회 전도사

김대준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은숙 M.Div

유동훈 목사 M.Div
멕시코 선교사

한광덕 목사 M.Div
Valencia OMC담임

2003년 제12회

구은혜 전도사 B.A.

김경희 전도사 B.A.
나성한인감리교회

김연옥 B.A.

윤희석 B.A.
동양선교교회

이갑년 집사 B.A.
동양선교교회

이순옥 B.A.
아프리카 선교사

임양택 전도사 B.A.
소망교회

최임식 B.A.
동양선교교회

한석규 목사 B.A.
새길교회

김승희 M.Div.
영락교회

김창국선교사 M.Div.
소천

박인호목사 M.Div.
OMC사역

박재민 목사 M.Div.

서필관 목사 M.Div.
하나님나라교회

이후상 목사 M.Div.
한국 사역

이희성 목사 M.Div.

장윤정전도사 M.Div.
벧엘한인교회

최준철강도사 M.Div.
세계아가페 선교교회

한은혜전도사 M.Div.
남가주 하나교회

배윤범 장로 M.A.

오광찬 장로 M.A.
동양선교교회

진성백 목사 M.Div.
나성양문교회

2004년 제13회

곽종혁 B.A.

권인순 전도사 B.A.
미주평안교회

김규호 전도사 B.A.
OMC

김수현 목사 B.A.
한빛교회

서상민 목사 B.A.
남가주 빌라델비아 교회

서영희 전도사 B.A.
KCC교회

성옥호 전도사 B.A.
세계선교교회

이만식 B.A.

이미정 B.A.
알라스카

최현숙 전도사 B.A.
벨리호산나교회

고영보 M.Div.
동양선교교회

곽상채 M.A.
남가주사랑의교회

김학송 목사 M.Div.
중국선교

김혜선 M.Div.
콜롬비아 선교사

방헬렌전도사 M.Div.
Korean Fellowship Church
Henderson, NV

변형철 M.Div.

양성반 M.Div.
동양선교교회

유정수선교사 M.Div.
코스타리카 선교사

유혜란선교사 M.Div.
코스타리카 선교사

이신재 M.A.

2005년 제14회

강문정 B.A.
W.L.A. 한인교회

김덕호 목사 B.A.
뉴저지 벧엘장로교회

김박선미 집사 B.A.
ANC 온누리교회

김연주 집사 B.A.
밸리찬양교회

김영애 권사 B.A.
쥬빌리형제교회

노광조 B.A.
감사한인교회

이명욱 집사 B.A.
동양선교교회

이순자 집사 B.A.
충현선교교회

오광탁 전도사 B.A.
반석선교교회

최용석 목사 B.A.
L.A. 한인침례교회

조경진 전도사 B.A.

박정일 목사 M.A.
일본 선교

정부르스 목사 M.A.
소망과 사명교회

최선영 전도사 M.A.
WMU 사무처장

윤병완 전도사 M.Div.
행복한 교회

이사무엘 목사 M.Div.
한국 사역

임양택 목사 M.Div.
소망교회

장시희 전도사 M.Div.
Servant Church

2006년 제15회

강명석 B.A

김선영 B.A

김소영 B.A
동양선교교회

김영준 B.A
한미중앙교회

박기용 B.A
동양선교교회

박영산 B.A
흰돌 교회

이귀란 B.A
C국 선교사

이인미 B.A
둘로스 교회

이지나 B.A
나성교회

정연희 B.A
선한목자장로교회

박지은 B.A
예수마을교회

김진주 M.A
Cornerstone Church

문혜원 M.A
올림픽 장로교회

강태준 M.Div
나성 양문 교회

김영종 M.Div
동양선교교회

노광조 M.Div
감사한인교회
아프카니스탄 선교사

백희숙 M.Div
남가주 사랑의 교회

양덕승 목사 M.Div
베델 한인 교회

오하영 전도사 M.Div

우상문 M.Div
베델한인교회

이지혜 M.Div
동양선교교회

장원욱 목사 M.Div
동양선교교회

한대연 M.Div
베델 한인교회

최준영 M.Div
동양선교교회

홍표란 M.Div
Christian Assembly

2007년 제16회

김영철 B.A
한미중앙교회

김명구 B.A
선한정지기교회

김룡 B.A
햇불교회

김병성 B.A
윌셔온누리교회

김용일 B.A
한국

Dan Son B.A
오레곤 동양선교교회

김현욱 B.A
가까운 교회

김혜정 B.A
동양선교교회

박정애 B.A
New Hope Chapel

오정성 B.A
나성순복음교회

윤명주 B.A
주님의 영광교회

이강천 B.A
동양선교교회

이기영 B.A
나성한인교회

이옥희 B.A
마가교회

임중혁 B.A
다우니 동양선교교회

장은혁 B.A
온누리교회

정성자 B.A
동양선교교회

정세련 B.A
멕시코 선교사

한춘복 B.A
평강교회

허영애 B.A
유니온교회

윤성희 B.A
동양선교교회

원영미 M.A
새창조교회

김정신 M.A

김연주 M.A

임명화 M.A
영원한기쁨교회

전진수 M.A
인랜드교회

홍선영 M.A
동양선교교회

강대홍 M.Div
남가주아시아교회

유동근 목사 M.Div
세계로선교회

김덕호 목사 M.Div
뉴저지 베델장로교회

서충석 M.Div
가든그로브
남가주가스펠교회

이혁우 목사 M.Div
밸리 하나로교회

장재영 목사 M.Div
베렌도한인침례교회

2008년 제17회

곽창원 B.A

김그레이스 B.A
베다니 한인교회

김경래 B.A
찬양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김대성 B.A
LA 동양선교교회

김옥배 B.A
충현성결교회

John Kim B.A

박옥련 B.A
중앙연합감리교회

석미연 B.A

심갑섭 B.A

안두환 B.A
LA 동양선교교회

안정희 B.A
말씀의 집 영유아부 전도사

엄인호 B.A

왕영신 B.A
LA 동양선교교회 성가대

윤상숙 B.A
글렌데일 그리스도의 교회

이석주 B.A
마가교회 새벽예배 인도
장/청년부 성경공부

이원희 B.A
ANC 온누리 운영부 전도사

이정인 B.A

이흥구 B.A
빌립 선교회 대표 목사

정병기 B.A
LA 온누리 운영부 전도사

조광범 B.A
동양선교교회 AWANA

주익성 B.A
LA 동양선교교회

차세실 B.A
성 바오로 성당 상담사역

채규태 목사 B.A
Good Morning
God Bless Mission
노숙자 사역

채동훈 B.A
마가교회

최은희 B.A
남서울 은혜교회

최자란 전도사 B.A
투산 사과나무교회

권상욱 M.A
세계비젼교회

김영안 M.A
나성성결교회 Soloist

김주영 M.A
미주평안교회 반주자

김희경 M.A

박양숙 M.A
시온연합감리교회 성가대

백혜선 M.A

이나은 M.A

이미경 M.A
윌셔연합감리교회

이미정 M.A
Redeemer 장로교회

강석재 M.Div
세계로 선교회 / 일본 선교사

기희승 M.Div
세계로 선교회 / 광주지역 간사

김상중 M.Div
세계로 선교회

김수현 M.Div
샌디에고 한빛교회 행정

김옥균 M.Div
세계로 선교회

김인철 M.Div
St. John's Presbyterian Church
국제 사역

김철수 M.Div
세계로 선교회
부르키나 파소 선교사

노명철 목사 M.Div
나성 주님의 교회 부목사

노창수 목사 M.Div
성공회

박창식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남아공 프레토리아 선교사

송필오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부산지역 전임 간사

신중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일본선교사

오광탁 M.Div
반석선교교회 목사

이대일 M.Div
새벽교회

이성균 M.Div

이영섭 M.Div
세계로 선교회
서울지역 간사

이종임 목사 M.Div
세계로선교회 부산지역 간사

이종현 M.Div
헐리웃 장로교회

이지희 M.Div
가까운교회

이홍주 M.Div

장윤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간사

장진호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코트디부아르 선교사

Paul Chung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인도 선교사

조승환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하윤호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캐나다 선교사

허종훈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일본 선교사

황만기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서울 지구 간사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자 명단

이사회 후원

강모세 / 곽건준 / 곽동호 / 금재연 / 김건태 / 김계환 / 김금자 / 김대성 / 김두환 / 김범수 / 김사라 / 김상연 / 김세웅 / 김영국 / 김영만 / 김영주 / 김인희 / 김재권 / 김정기 / 김지수 / 김진광 / 김진영 / 김진호 / 김창국 / 김창범 / 김창호 / 김채광 / 김청익 / 김충일 / 김해룡 / 김현숙 / 김휘웅 / 남조웅 / 마사웅 / 마창식 / 명잔 / 박리챠드 / 박재호 / 박제임스 / 박태호 / 박평식 / 방연옥 헬렌 / 박옥/ 배기복 / 백형권 / 석태운 / 성광수 / 손석효 / 손주영 / 송인하 / 신동순 / 신병모 / 신재권 / 신재철 / 안광석 / 안의식 / 안정삼 / 양근수 / 엄경자 / 엄창웅 / 여상직 / 오광찬 / 오상헌 / 오재선 / 오태근 / 유문근 / 유수잔 / 윤성환 / 윤정림 / 윤정아 / 윤태중 / 이규태 / 이광영 / 이미옥 / 이병인 / 이병주 / 이승인 / 이재현 / 이정남 / 이정원 / 이중용 / 이태종 / 이필석 / 이한길 / 이형규 / 이효성 / 이효신 / 임동선 / 임승천 / 임승표 / 임의진 / 임진수 / 장기준 / 장코스모스 / 정광자 / 정문섭 / 정봉모 / 정중섭 / 정진식 / 정호영 / 조왕하 / 조용직 / 조정현 / 주성천 / 진성백 / 최근홍 / 최선영 / 최종원 / 최형기 / 최호춘 / 한궁리 / 한동열 / 한승수 / 한주영 / 한평우 / 함수현 / 허명 / 홍성식 / 홍춘만 / 황재길

연합회 후원

LA OMC (강준민) / 다우니 OMC (남종성) / 로간 OMC / 로마한인교회 (한평우) / 발렌시아 OMC (한광덕) / 뷔츠브룩한인교회 (서명호) / 샌디에고 OMC (김성식)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 세리토스 OMC (석태운) / 쌍파울 OMC (황은철) / 씨애틀 OMC (이중용) / 아리조나 OMC (김용식) / 알라스카 OMC (이성원) / 오레곤 OMC (이상호) / 유타 OMC (장익성) / 주님의 선교교회 (이인검) / 중부 OMC (임병택) / 콜로라도 OMC (윤경호) / 팜데일 OMC (이재현) / 한미중앙교회 (김건태) / 한빛교회 (정수일) / CLMM (군사랑선교회)

동문회 후원

강성구 / 강태준 / 고영보 / 권인순 / 권재옥 / 김경례 / 김동준 / 김승원 / 김용식 / 김인희 / 김창국 / 김추자 / 김효복 / 남조웅 / 박인호 / 방헬렌 / 백희숙 / 양덕승 / 양성반 / 우상문 / 유정수 / 윤경호 / 윤병완 / 윤성환 / 이명희 / 이상혁 / 이인검 / 이재현 / 이정남 / 이희성 / 임금화 / 임양택 / 장원욱 / 장코스모스 / 정연희 / 조배성 / 조성은 / 조은혜 / 조항목 / 조화진 / 진성백 / 한광덕 / 한석규 / 한은희 / 홍표란

기도후원회

Agron, David / Alvarez, JaRan Choi / Bae, DongLim / Bishop, Chea Sun Shin / Byun, In Hwa / Chae, Sung Hee / Chang, Cosmos / Chang, Yoo Jin / Chang, Hye Jin / Cho, Jae Sung / Cho, Myung Hee / Cho, Sang Cun / Cho, Seoghwan / Cho, Young Kern / Choi, Hyun Sook / Choi, Ja Ran / Choi, Min Young / Choi, Young Soon / Chon, Johnny / Chun, Daniel J. / Chun (Nam), Kasey / Chung Seong Ja / Chung, Ki Yeon / Chung, Young A / Cosmetic City / Doh, Eun Joo / Dong, Pil Ryeo / F.S.W. / Ham, Dong J. / Ham, Jung Hee / Han, Esther Mi Kyung / Han, Grace / Hahn, Mi Kyung / Han, Pyung W. /Hong, Jung Nam / Hur, Myong / Im, Sung Sil / Jeon, HaeKyung / Jeon, Yong Gyu / Jeong, Soon Duk / Jeong, Young Sook / Jun, Sung Do / Jung, Bong Mo / Jung, Jong Shik / Jung, Young A. / Kang, Christine / Kang, Daniel Dae Hong / Kang, Joo Hee / Kang, Tae Joon / Kang, Young Sun / Kil, In Sun / Kil, Jong Tae / Kim, Bok Sun / Kim Christine / Kim, Chun Hee / Kim, Chung Joo / Kim, David / Kim, Dae Young / Kim, Duck Ho / Kim, Duk Kil / Kim, Hyun Sook / Kim, Evelyn S. / Kim, Genie / Kim, Grace / Kim, Hyun Ja / Kim, Hyun Kil / Kim, Kwang Hoon / Kim, Kwon Soo & Jane / Kim, Kyong Nyo / Kim, Kyung Sook / Kim, Peter Kwans / Kim, Rachel / Kim, Sang / Kim, Soyeong / Kim, Steve / Kim, Yong Chorl / Kim, Young Jong / Kwon, Bong Nyo / Kwon, Hyuk Min / Kwon, Jung Ae / Kwon, Moon Ja / Lee, Brad D. / Lee, Chun Do / Lee, Daniel S. / Lee, David / Lee, Dong Ho / Lee, Ellen W. / Lee, Eunice H. / Lee, Hannah / Lee, Hong Il / Lee, Jessica / Lee, Jin Dong / Lee, Jenny / Lee, Jessica Yong C. / Lee, Jong Ae / Lee, Jong Do / Lee, Keum Hee / Lee, Ki Young / Lee, Kyong / Lee, Kyudong / Lee, Kyung S. / Lee, Luk Rim / Lee, Myo Hwan / Lee, Sang Hyouk / Lee, Sang Tae / Lee, Si Ja / Lee, Sok Chu / Lee, Soo Hoon / Lee, Soon Ja / Lee, Sung Yon / Lee, Won Yong / Lee, Won Young / Lee, Yong C. Jessica / Lee, Young / Lee, Young Ae / Lim, Hyun Jae / Lim, Kum Hwa / Lim, Sung Sil / L.S.I. / L.T.M. / McLain, Ginny / Nam, Lydia / Nam, Sang Il / Nokdoo Graphic Printing / Oh, Hee Jung / Oh, Peter Sungtae / Pae, David / Pae, Eung-Kwon / Park, Byung Mo / Park, Ji Seon / Park, Jin Sang / Park, Jung R. / Park, Kap Young / Park, Mi Sung / Park, Mi Sook Choi / Park, Myung Hee / Park, Ruth Kim / Park, So Ra / Park, Soo Bok / Park, Sunki / Park, Sung Soo / Park, YoonWoo / Sans Souci, LLC / Seo, Young Soo / Shin, Boo Nam / Shin, Hyun Woo / Shin, Kyong Ho / Song, Moon Sang / Suh, Dong Min / Sumpaio, Mun Cha / Um, Kyung Choon /

기도후원회

Um, Sang Ho / Won, In Hye / Woo, Sanghun / Yang, Duk Sung / Yang, Young Eun / Yeo, Byung Hyun / Yeo, Byung Hyun / Yeo, Esther / Yeo, HyunJung / Yeo, Uk Jae / Yoo, Gil Sang / Yoo, Sung Ryu/ Yoon, Sang Suk / Yoon, Sang Wook

김성종 / 김영태 / 노을래 / 윤기성 / 온성철 / 이홍주 / 정연희 / Ahn, Il Chan / Chun, KwangIl / Kim, Sang Joong / Lee, Jung Soo / Lim, In Ok / Pae, Hye Yung / Park, Woo Sung / Wilsihre State Bank / Cho, GoonJa / Choi, Lisa Pilsoo / Kim, Christina / Kim, NamJin / Lee, Boram / Lee, SongJa / Lee, Won bok / Lee, Yang Ye / Lee, Yong Jin / Park, Grace / Park, SangEun / Park, Sarah / Park, YongRan / Yang Yong Man / Youm, Caroline / Youm, Kathy

달란트 운동 참여자

강현주, 고선우, 고정석, 공성란, 곽순희, 금미화, 김권수, 김대동, 김대성, 김동환, 김명신, 김박선미, 김선애, 김선영, 김정득, 김중한, 김캐티, 노종주, 라캐빈, 박병문, 박윤우, 박정훈, 박표강, 서무생, 손복남, 신선미, 신은혜, 양한나, 여현정, 오금미, 원현옥, 유병필, 유영, 윤명주, 윤박선미, 윤은영, 이성희, 이용자, 이은혜, 이현, 이현일, 이희재, 임중혁, 정나연, 정병기, 조명희, 채규태, 최명순, 최영수, 추영선, 최세라, 한용섭, MT 사랑팀

동양선교교회 기도후원회

강애순 / 강금석 / 강병례 / 강병목 / 강선주 / 강승묵 / 강영혜 / 강정희 / 강종흥 / 강준민, 희종 / 강지미 / 강한나 / 강형묵 / 계옥주 / 고덕유 / 고은현 / 고정희 / 고주현 / 곽광례 / 곽병재 / 구경훈, 연호 / 구자원 / 권재환, 이경미 / 금남이 / 금재연 / 김경이 / 김경자 / 김경호 / 김경호, 현주 / 김금동 / 김금례 / 김금자 / 김기옥 / 김기자 / 김나영 / 김낸시 / 김동석 / 김룻 / 김명진 / 김문숙 / 김문희 / 김미정 / 김보환, 영의 / 김삼중,은희 / 김선영 / 김선옥, 혜랑 / 김선혜 / 김성권 / 김세민 / 김수지 / 김소리 / 김신환, 박슬기 / 김영숙 / 김영애 / 김영옥 (0403) / 김애순 / 김옥남 / 김옥순 / 김옥임 / 김옥자 / 김옥저 / 김우월 / 김인곤 / 김인애 / 김재순 / 김재용, 화실 / 김재한 / 김정우 / 김정이 / 김정화 / 김정환, 선희 / 김조안나 / 김종길 / 김지성 / 김지윤 / 김창범 (예은) / 김추자 / 김충걸 / 김충일, 복순 / 김헬렌 / 김혜순 / 김혜영 / 김혜자 /김혜정 / 김홍선, 성숙 / 김홍순 / 김효신/ 나승자 / 남기문 / 남기안 / 노애린 / 노정민 / 마정순 / 문동숙 / 문정희 / 문지민 / 문지원 / 박경남 / 박경희 / 박논세 / 박송학 / 박수복 / 박수형 / 박연숙 / 박영부 / 박옥 / 박옥희 / 박재옥 / 박정애 / 박종순 / 박청원 / 박캐롤, 영환 / 박하늘 / 박현숙 / 박환, 정희 / 박호석 / 배성은, 혜영 / 백기돈, 봉님 / 백형래 / 성광수 / 성병헌 / 손홍심 / 송숙희 / 송혜숙 / 승정희 / 승지수 / 신정민 / 신태문 / 신혜나 / 심옥선 / 안성실 / 안옥순 / 안의식, 옥자 / 안종순 / 안현숙 / 양순옥 / 양승달 / 양아경 / 양영옥 / 양지훈, 진희 / 양준석 / 양학봉 / 엄경춘 / 엄옥엽 / 여상락희 / 염혜경 / 오광찬 / 오명엽 / 오명순 / 오윤표 / 원세현 / 원재수 / 유금자 / 유문식 / 유순의 (9043) / 유월선 / 유정숙 / 유태분 / 유현숙 / 윤미진 / 윤선영 / 윤에스더 / 윤응숙 / 윤정림 / 윤준 / 윤창섭 / 윤희석 / 윤희원 / 이경순 / 이광열 / 이규현. 명순 / 이기남 / 이그레이스 / 이금선 / 이금춘 / 이레베카 / 이마리아 / 이명섭 / 이명순 / 이명일 / 이병걸 / 이복선 / 이성희 / 이순섭 / 이승기 / 이연순 / 이영희 / 이옥선 / 이원석 / 이윤동 / 이은혜 / 이인숙 / 이인식 / 이재순 / 이정선 / 이정숙 / 이정순 / 이정원 / 이종만, 수단 / 이종찬, 경혜 / 이종현 / 이주연 / 이주희 / 이중배 / 이진선 / 이찬봉 / 이태길 / 이황윤 / 이형영 / 이혜숙 / 이효신 / 이희범 / 임경숙 / 임동선 / 임금화 / 임동진 / 임은점 / 임은화 / 임정자 / 장승자 / 장영애 / 장원욱, 지혜 / 장정숙 / 장진재 / 전도화 / 전영식 / 전윤진 / 전중하 / 정광자 / 정데보라 / 정성길 / 정영순 / 정영옥 / 정인숙 / 정의량, 현숙 / 정의정, 용주 / 정행화 / 정희성, 선희 / 제임스 스미스 / 조명희 / 조순선 / 조순애 / 조아나, 명기 / 조웅래 / 조윤희 / 조향숙 / 조현희 / 주익성 / 주정현 / 주화순 / 진강일, 예경 / 차귀동 / 차순임 / 차영숙 / 천영민 / 천효수 / 채순임 / 최남숙 / 최미선 / 최미정 / 최수남 / 최승희 / 최신자 / 최영은 / 최의송 / 최재호, 미경 / 최종열 / 최주희 / 최형기, 미자 / 최희숙 / 치동열 / 한규환, 영숙 / 한동희, 만혜 / 한승수, 승향 / 한안나 / 한영희 / 한용섭 / 한인실 / 함재목 / 함정희 / 허명 / 홍기영 / 홍명주 / 홍병희 / 홍세욱 / 홍수현 / 홍옥선 / 홍은옥 / 홍정혜 / 홍재은 / 홍조시아 / 홍주희 / 황봉자 / 황화진 / 회원번호9421-2 / Jin, Hui / Kang, Jimmy / Kang, Tommy / Kim, Stacy J. / Lee, In Sook / Lee, Rebecca S. / Myung, John / Yoon, E.S.

모집학위 및 학위과정

학사 (B.A.) 과정
성경신학과(세부전공-목회학, 선교학, 기독교 상담)
상담학과, 일반학과
음악과(세부전공-일반음악, 교회음악)

석사(M.A./M.Div.)과정
신학과
음악과(세부전공-일반음악, 교회음악)
목회학과(세부전공-목회학, 음악)

특 징

-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 학점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미 연방정부의 학비 보조 (Financial Aid) 프로그램
- 미국 군목 장교로 지원 가능
- SEVIS I-20 발행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학위 취득 가능

월드미션대학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USDE
등록인가

ATS
Associate Member

ABHE
정회원

CHEA
등록인가

TRACS
준회원

미국정규대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USDE(미국연방정부 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search.asp
ABHE(미연방신학대학인준협의기관)	www.abhe.org/accredited.htm
TRACS(기독교대학인준협의기관)	www.tracs.org/candidate.htm
ATS(신학대학원 협의회)	www.ats.edu/member_schools/worldmis.asp
CHEA(미국대학교육인가협회)	www.chea.org/search/default.asp

위에서 확인되는 대학교는 미연방정부 교육부(USDE)와 미국대학교육인가협회 (CHEA)로 부터 인가받은 미국 정규대학이며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500 S.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 388-1000 Fax.(213) 385-2332
총 장: 임동선 박사 Ph. D., D. Min.
wmucde@gmail.com www.wmu.edu